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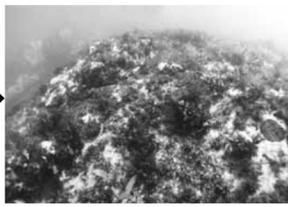
남해안 33%가 갯녹음...어장 황폐화 우려

진도·완도·여수 등 전남 연안
수온상승·오염 '사막화' 유발
정부, 294ha에 해조류 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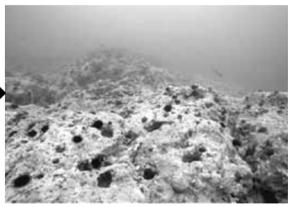
■갯녹음 현상 진행 과정



정상 암반



갯녹음 진행



갯녹음 심화

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남에선 해남 연안과 완도 연안, 완도 소안도·초도·보길도, 보성·고흥·여수·광양 연안 곳곳에서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닷속의 바위가 하얗게 변해 버리는 갯녹음 현상은 이른바 바다의 사막화 현상으로 불리며 바다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상적인 암반이라면 해조류 등이 빼곡히 달라붙어 서식해야하는데 갯녹음이 진행된 암반은 말 그대로 바윗덩어리만 덩그러니 놓인 것이다. 바다 생태계의 근본이 되는 해조류가 사라지면 서 어패류 등 해양생물은 서식지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어민 소득 감소 등을 수반하게 된다는 게 공단 측 설

? 갯녹음 현상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무절석회조류(無節石灰藻類)가 달라붙어 암반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무절석회조류는 수산 생물에게는 먹이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갯녹음이 생기면 해조류를 먹는 어패류도 사라져 버려 어장이 황폐화 된다. 백화현상의 원인은 이상기온에 따른 수온상승과 육지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이다.

갯녹음 현상은 해조류를 먹는 성게 등 조식동물 증가 등 바닷속 환경 변화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연안 오염, 해조류 남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갯녹음 현상의 해결책으로는 바다숲 조성 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갯녹음이 발생

한 연안 해역에 인위적으로 해조류 이식 및 포자방출을 함으로써 황폐화된 바다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전남 및 경남해안 바다숲 조성 사업에 33억원을 투입, 갯녹음 현상이 확인된 294ha 규모의 바다를 되살리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천적 확인

'가시고기벌' 활용 방제 연구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며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천적을 확인해 재선충병 방제에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최근 '가시고기벌' 애벌레가 솔수염하늘소 애벌레에 기생하며 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안팎의 실같은 선충으로 소나무 조직 안에 침투해 수분 통로를 막아 죽게하는 해충이다. 한번 감염되면 나무가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해충으로, 솔수염하늘소는 이 재선충을 옮기는 주요 매개충으로 지목돼 왔다.

산림당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에 예방주사를 놓거나 약제를 살포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방제 방법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솔수염하늘소의 천적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친환경적 방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수목원 연구에 따르면 가시고기



가시고기벌

벌은 솔수염하늘소 애벌레 표피에 알을 낳아 기생하는 고치벌과의 곤충이다. 국립수목원은 지난달 국립산림과학원 및 순천대 수목진단센터와 함께 산림식미소기생벌의 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시고기벌 애벌레가 솔수염하늘소 애벌레의 체액을 빨아먹고 자라나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가시고기벌은 솔수염하늘소 애벌레 1마리당 1~5마리가 기생해 자라며, 기생률은 최대 59%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목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가시고기벌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재선충병을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에 들어갔다. 현재 가시고기벌 성충을 이용해 정확한 숙주 곤충 탐색과 산란 조건을 파악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완도 소안도서 수컷 해마 출산 최초 포착

완도 소안도 해초에서 수컷 해마가 새끼를 낳는 모습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해마의 산란부터 출산까지 생태 특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 소안도에서 해마류 생태연구를 벌이던 중 이런 내용이 담긴 해마의 산란특성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일처제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마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과 수컷이 서로 꼬리를 감은 상태에서 교미한다. 이때 암컷은 수컷의 배에 있는 주머니(보육낭) 속에 알을 산란한다.

수컷은 수정란을 돌보고 부화시킬 뿐만 아니라 태어난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배속에서 키우다 1cm 정도까지 자라면 새끼를 내보낸다. 대부분 어류는 부화 후 스스로 섭식이 가능한 시기까지 에너지를 난황에 의존하는 자어(larva)단계를 거친다. 해마는 자어단계를 수컷의 보육낭에서 보낸다. 난황은 새나 물고기 같은 난생 동물의 알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물질로 달걀을 깨면 나오는 노른자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난황 흡수가 끝나고 스스로 섭식이 가능한 자어(juveniles)단계에서 수컷이 출산을 하는 특이한 태생(胎生)어류다.

조사결과 소안해마의 수컷은 5~6월께 암컷으로부터 알을 받아 20~30일간 보육하다가 6~7월께 마리당 치어 30~70마리를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소안해마의 치어수가 최대 2000마리의 치어를 내보내는 빅벨리해마(Big belly seahorse) 등 다른 해마류에 비해 매우 적어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마는 독특한 외모형태(말과 물고기의 융합)와 일부일처제·수컷보육 등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관광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또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알려져 전세계에서 과도한 남획과 불법거래가 성행하면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고 국제거래 금지품목에도 등재돼 있다. 해마는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해 여러 나라에서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깃대종(flagship species)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마가 서식하면 그만큼 연안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khk@kwangju.co.kr



소안해마

국립공원 탐방예약제 확대

지리산·오대산 등 8곳으로

이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리산을 비롯한 5곳의 국립공원에서 탐방예약제가 확대,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대상구간은 지리산 구룡탐방지원센터~구룡폭포 3.1km, 오대산 진고개~동대산~동피골 4.4km, 속리산 침성대~도명산·학소대 6.2km, 월악산 계란재공원지킴터~옥순봉·구담봉 2.9km, 기존 산림청 예약제 시행구간인 설악산 강선리~곰배령 5.1km 등 총 5곳이다.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이번에 확대되는 구간을 포함하면 지리산 칠선계곡과 노고단, 북한산 우이령 구간 등 총 8곳에서 운영되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상 정복형의 산행문화를 개선하고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려고 탐방예약제 확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탐방예약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누리집(reservation.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을 알려면 국립공원 고객센터(1670-9201) 또는 국립공원별 해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

美 별판 뒤덮은 회오리바람 '슈퍼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라스카주 맥스웰에서 폭풍을 쫓아다니며 촬영하는 '스튜 체이서'가 촬영한 뇌운 '슈퍼셀'(super-cell) 모습.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는 뇌운이다. /연합뉴스

평택 토지 전문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

평택 토지 매매

- ① 평택 고덕면 당현리 (고덕신도시 5분) / 토지 613평 ▶ 매가 5억 8천 235만
- ② 평택시 고덕면 동천리 (고덕신도시 5분) / 2,223평 (평당 35만) ▶ 매가 7억 8천 178만
-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고덕신도시 5분) / 775평 (농림지역) 도로 물림, 계획관리지역 옆 ▶ 매가 8억 5,250만
- ④ 진위면 마산리 / 314평 (투자 A급) 진위역과 LG산단, 마산단지 지번 ▶ 매가 3억 7천 680만
- ⑤ 진위면 마산리 / 301평 (전) 마산산단 25만평 정문 앞쪽 ▶ 매가 5억 2천
- ⑥ 평택시 자산동 (송탄 터미널 3분) 빌라, 오피스텔 개발부지 추천 / 193평 ▶ 매가 12억 6천만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경기도 화성시 (공장부지)

정남 IC 5분 !! 평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을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분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영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 ①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토 66평, 건 260평 6층 상가건물, 상무지구 중심가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9억5천
-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8평 신창중 정문, 신축건물 룸 11개 - 월수익 350만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7천
-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입구,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5억5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압인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전 경험자 우대, 환영

062-527-7600 010-6834-4800